

7/3/16

설교 제목: 이신칭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갈라디아서 2:11-21

- (갈 2: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 (갈 2: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 (갈 2: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 (갈 2: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 (갈 2: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절관주** 행 15:10, 마 9:11, 엠 2:3
-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 (갈 2: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 (갈 2: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롬 8:2
- (갈 2: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갈 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는 지난 번 1 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못박으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진리를 기독교 교리로 확립시킨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책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까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칭의와 성화를 다룬 책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아주 핵심 부분인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바울은 1 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공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당시 이슈가 되고 있었던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만 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만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디도에게도 할례를 받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이 문제를 공회로 가져간 것입니다.

드디어 공회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만 난다고 결론지었으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세움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음 안디옥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고 안디옥으로 돌아 온 후 베드로를 여러 사람들 면전에서 책망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발단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을 보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해서는 안되는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이 자신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 지 몰라서 눈치를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고넬료 전도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으나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기에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에 복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과 사명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막힌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이 들이 닥치자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갈 2: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갈 2: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안디옥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진리를 차근 차근
설명을 합니다.

(갈 2: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은 먼저 자신과 베드로를 포함해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을 다독여 준 다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방인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우리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면
율법을 100% 다 지켜야 하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도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율법은 우리의 행동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문제를 삼습니다.

예를들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을 한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해도 간음한 것입니다.

이런 율법 앞에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기독교 교리로 정립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칭의'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의롭게 변화되었다거나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의롭게 되었다거나 의로워졌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의로워진 우리가 그 후 세상을 의롭게 살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가 없어진 것입니까?

칭의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졌다 거두어졌다 합니까?

칭의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졌다 거두어졌다 한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평생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가슴 졸이며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렇게 '칭의'를 해석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게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졌다,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적인 권위로 의롭다고 선포된 것입니다.

칭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 밖에서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어졌다 거두어졌다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죄 투성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이런 내게 하나님의 칭의의 선포가 아직도 유효한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다 지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칭의가 선포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 보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기 위해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조건들을 보태야만 한다면,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참된 행위도 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갈 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거 아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갈 2: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를 졌으니 당연히 율법에 의해 죽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니깐요.

바울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알았고 율법이 자신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으며 그리하여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했는데 바울은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이제 율법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언급합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의 신비한 은혜로 2000 년 전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구원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 자유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어진 자유의 권리를 한껏 누리십시오.

지금쯤 여러분 중 속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애를 써가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나를 살리려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슴이 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진정으로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다 바울처럼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